

동물 가죽과 모피 소재의 패션제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도덕철학과 지각된 도덕적 강도의 매개 역할

김혜성 · 홍희숙[†]
제주대학교 패션의류학과

The Indirect Effects of Personal Moral Philosophy and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Moral Intensity in the Purchase Behavior of Fashion Products made of Animal Skin and Fur

Hyeseong Kim · Heesook Hong[†]

Dept. of Fashion and Textiles, Jeju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October 17, 2023; Revised (March 25, 2024; May 24, 2024); Accepted June 7, 2024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idealism and relativism, which are the two dimensions of personal moral philosophy, and the perceived moral intensity affect the purchase behavior of consumers regarding fashion items made of animal skin and fur.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data from 372 Korean female consumer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excluding questionnaires with non-response, insincere responses, and outliers. The data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f idealism but a non-significant effect of relativism on perceived moral intensity concerning the purchase of real leather and fur fashion items. I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each fashion item, perceived moral intensity had a negative effect on purchase behavior. The indirect effect of idealism on purchase behavior through the perceived moral intensity was confirm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ach fashion item. However, neither idealism nor relativism had a direct effect on the purchase behavior of both fashion items. The research results were discussed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Idealism, Relativism, Moral philosophy, Moral intensity, Animal skin and fur; 이상주의, 상대주의, 도덕철학, 도덕적 강도, 동물의 가죽과 모피

I. 서 론

패션산업에서는 동물의 가죽과 모피로 만든 의류 제품과 패션잡화 아이템들을 통틀어 천연가죽 패션제품(real leather fashion items)과 천연모피 패션제품

(real fur fashion items)이라고 한다. 천연가죽은 포유 동물이나 파충류의 피부를 벗겨내고 털을 제거하여 무두질한 원단으로 동물의 몸을 싸고 있는 껍질을 정제된 소재이다(Kim, 2011). 천연모피는 털이 붙은 채로 동물의 피부를 벗겨 무두질한 것으로 생가죽에 털이 붙어있는 원단을 말한다(Lee, 2017). 코로나 감염증(COVID-19)으로 크게 위축된 2022년 천연가죽 글로벌

[†]Corresponding author

E-mail: heesookh@jejunu.ac.kr

별 의류 시장 규모는 933억 2,500만 달러에 그쳤고, 2028년까지 3% 정도의 성장(1,130만 달러)만 기대되는 상황이다(Business Research Insights, 2024). 천연 모피 의류를 포함한 국내 모피 수입액 또한 2019년 대비 약 30% 감소하여 2021년에는 8,900만 달러에 머물렀다(Korea Customs Service, n.d.). 반면, 2026년 글로벌 여성 비건패션 시장 규모는 2020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2028년에는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Smith, 2024).

특히, 최근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동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Lim, 2021). 이것은 윤리적·비윤리적 소비를 이끄는 개인적 특성이나 제품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학술적, 실무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윤리적 이슈가 내포된 패션제품 구매행동에 대한 설명과 예측에 개인의 도덕성을 접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더욱이 천연가죽과 천연모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천연모피 의류제품의 구매 동기, 구매촉진, 구매 저해 요인의 규명에 제한되었으며(Belton & Clinton, 2007; Carrier et al., 2014; Lee, 2017; Lee & Choi, 2016), 동물·환경 이슈가 연관된 구매행동(의도)을 개인의 도덕적 특성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개인의 어떤 특성이 다른 생물종인 동물에 대한 학대나 환경생태계 파괴에 대한 내적 민감성과 도덕적 판단을 다르게 하여 윤리적 구매행동을 이끄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인조가죽이나 인조모피 패션시장의 성장이 동물 가죽과 모피 소재의 비윤리성에 대한 회피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Kim & Kwon, 2016),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 구매행동은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의 서로 다른 도덕철학인 이상주의(idealism)와 상대주의(relativism)는 다양한 분야의 실증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환경적 이슈에 대한 개인의 반응 차이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개념임이 확인된 바 있다(Forsyth, 2020).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 소비자의 도덕철학이 동물에서 채취한 가죽과 모피 소재의 패션제품 구매에 대해 지각하는 도덕적 강도(perceived moral intensity)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덕적 강도 지각이 높아지면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행동은 낮아지는지를 규명하였다. 이것은 윤리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 패션제품의 구매행동을 예측하는데 유

용한 개인적 특성이 무엇이며, 개인의 도덕철학이 어떻게 사회적·환경적 이슈 관련 패션제품의 구매행동을 이끄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공적 기관의 정책 수립과 교육 방향 모색 및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1.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 구매행동

천연가죽은 내구성이 높은 실용적 소재이고, 천연모피는 경제적 부의 과시, 사회적 지위 상징, 고급스러운 이미지 표현에 유용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동물의 가죽과 모피는 패션제품의 전체나 일부에 꾸준히 활용되었다. 소, 양, 돼지, 염소, 악어, 뱀 등에서 채취한 가죽은 주로 의류, 가방, 신발, 장신구 제품에 사용되며(Kim, 2011; Seol, 2000), 여우, 밍크, 비쿠냐, 친칠라, 너구리, 토끼, 물개, 곰, 수달 등 야생동물에서 채취한 모피는 주로 의류와 장신구에 사용된다(PETA, n.d.). 그러나 천연가죽 패션제품에 대한 대량생산과 고급화 수요는 공장식 가축 농장 운영, 가축 채취와 가공 과정에서 잔인성과 과도한 화학물질 사용(Kim, 2022; Lee, 2015), 소의 강제 번식, 생후 6개월 이내의 송아지가죽 채취 등의 동물 학대를 증가시켰다(Collective Fashion Justice, n.d.; Seol, 2000). 천연모피의 소비 대중화와 고급화 또한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 환경생태계 파괴, 멸종 위기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인도 등은 천연모피 농장을 폐쇄하거나 천연모피 생산·판매를 금지하였으며(Sung, 2021), 페루, 한국은 비쿠냐, 수달 각각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Lee, 2008; YTN, 2019).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들 또한 천연모피의 사용을 중단하였다(Sung, 2021).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에서도 동물학대나 환경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천연가죽이나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를 비윤리적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가죽과 모피 소재의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행동을 규명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천연가죽 의류제품 구매 경향이 높은 미국 남녀 대학생

들은 천연모피 의류제품에 대한 구매 또한 높았다 (Belton & Clinton, 2007). 천연모피 패션제품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이 주로 추구하는 혜택은 상징성과 과시성이었다(Kim, 2010; Lee & Choi, 2016). 캐나다 퀘벡 남녀 소비자는 천연가죽 패션제품의 선택에서 제품 자체적 특성(내구성, 스타일, 원료, 가격)을 환경, 윤리, 생태계 등의 문제보다 더 중요시하였다(Carrier et al., 2014). 이처럼 기존 연구들에서는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 소비자들이 동물·환경 이슈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연구들이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도덕철학을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도입하고,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동물·환경 이슈에 대한 지각 정도가 개인의 도덕철학에 따라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이슈에 대한 지각 정도가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선택과 관련되는지를 검토하였다.

2.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은 어떤 것이 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Forsyth, 2020). 무엇이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지는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합의되어 공유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에 기반하여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Forsyth, 2020; Forsyth & Nye, 1990). 의무론적 철학(deontological philosophy)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행해야만 하는 의무(duty)와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에 초점을 맞춘다(Barnett et al., 1994). 의무론자들은 사회 규범과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에 따라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며(Glenn et al., 2009; Nucci & Turiel, 1993),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상관없이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다(Gray & Schein, 2012; Piaget, 1932). 반면, 목적론적 철학(teleological philosophy)에서는 결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클 경우 특정 행동이나 선택이 도덕 표준(moral standard)에 위배가 되더라도 이에 대한 허용이 가능하다(Barnett et al., 1994).

Forsyth는 개인의 태도, 신념 및 가치의 형성에 선행하는 가장 근본적 요인이 개인의 도덕철학(personal moral philosophy)이라고 믿고, 특정한 문제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지각, 인식, 태도, 행동에서의 개인 차이를 의무론적 철학에서 유래한 이상주의 이데올로기와 목적론적 철학에서 유래한 상대주의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설명하였다(Forsyth, 2020; Forsyth & Nye, 1990). 특히, Forsyth는 해를 끼치는 행위의 허용 여부(의무론 vs 결과론)와 도덕 표준의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이상주의와 상대주의의 성향을 평가하는 척도(Ethics Position Questionnaire, EPQ)를 개발하였다(Forsyth, 1980, 2020). EPQ 척도에서 이상주의 차원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선의 촉진 행동에 가치를 두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상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해를 끼치는 행동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의 복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높다(Forsyth, 2020; Forsyth & Nye, 1990). 또한, 이상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도덕 표준 준수를 올바른 행동이라 여기며, 올바른 행위(right action)에는 항상 바람직한 결과가 따를 것으로 믿고, 사회의 도덕 표준(또는 규칙, 원칙, 규범 등)에 순응하여 보편적 도덕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Forsyth, 1980, 1981). 반면, 이상주의적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도덕 표준을 준수해도 부정적 결과가 따를 수 있고,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는다(Forsyth, 1981; Forsyth & Pope, 1984). EPQ 척도에서 상대주의 차원은 도덕적 원칙의 보편성에 대한 거부 정도로 평가된다. 상대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도덕 표준에 회의적이어서 도덕적 판단을 할 때 보편적 도덕 규칙에 의존하지 않는다(Forsyth, 1980, 2020; Forsyth & Pope, 1984). 또한, 상대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결과의 긍정성이나 이익의 정도에 민감하고,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경향이 높다(Forsyth et al., 2008; Zou & Chan, 2019). 특히, 상대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에 처한 상황적 요인, 상황의 복잡성,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춘 도덕적 판단을 하므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도덕성 판단 기준이 다르다(Forsyth, 1992; Forsyth & Pope, 1984; Tansey et al., 1994).

패션기업과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또한 개인의 도덕철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의 기업

인들과 소비자들은 이상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패션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였지만, 상대주의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없었다(Lee, 2010). 이상주의 성향이 높은 한국 여성들은 지속가능 소재(유기농과 천연염색 소재)의 패션제품 구매에 대해 도덕적 강도를 높게 지각하였지만, 상대주의는 지각된 도덕적 강도와 관련이 없었다(Hong & Kang, 2019). 반면, 상대주의 성향이 높은 한국 대학생들은 복제품 구매 시 환불 불확실성을 높게 지각하였으나 이상주의는 지각된 위험 유형 모두와 관련이 없었다(Lee & Johnson, 2007). 이와 같이 소비자의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성향에 따라 윤리적·비윤리적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동물학대, 환경생태계 파괴, 멸종 위기를 초래하는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에 대해 지각한 도덕적 강도 또한 개인의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3. 지각된 도덕적 강도

지각된 도덕적 강도는 특정 상황이나 특정 행위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나 긍정적 결과 및 윤리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의미한다(Jones, 1991; Singhapakdi et al., 1999). Jones(1991)는 도덕적 강도 개념을 구성하는 6개 하위 차원을 제시하였다. 확률(probability)은 특정 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나 이익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뜻하며, 규모(magnitude)는 피해나 이익의 총합을 의미하고, 즉시성(temporal immediacy)은 피해나 이익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지를 말한다. 근접성(proximity)은 피해나 이익이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물리적 측면에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도이다. 집중성(concentration)은 피해나 이익의 영향 범위는 작지만,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가해질 피해의 치명성이나 혜택의 절대적 유의성 정도에 대한 지각이다. 사회적 합의성(social consensus)은 특정 행위의 바람직성과 윤리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동의 정도이다.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하위 차원들을 모두 이용하거나 연구주제에 맞게 일부를 선별하여 지각된 도덕적 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서는 6개 하위차원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다루어 각 하위차원의 영향력을 규명하거나, 하위차원 모두 혹은 일부를 단일 차원의 도덕적 강도를 측정하는 항목들로 취급하여 전반적 도덕적 강도(overall moral intensity)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지각된 도덕적 강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패션제품 구매행동을 예측한 연구는 매우 소수이다. Hong and Kang(2019)은 지속가능한 패션제품의 구매로 얻어지는 환경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어 이 제품의 구매가 가져올 환경보호의 확률, 규모, 즉시성, 근접성,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지각 정도를 ‘지각된 도덕적 강도’로 평가하였다. Kim et al.(2009)은 미국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 패션제품(그레이마켓 제품, 이미테이션 제품, 복제품)의 구매로 인해 오리지널 브랜드가 입을 피해를 지각된 도덕적 강도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도덕적 강도는 세 유형의 제품 구매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지만, 소비자들은 지각된 도덕적 강도가 클수록 제품구매를 도덕적 문제로 판단하였고, 도덕적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이미테이션 제품과 복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낮았다. 그러나 그레이마켓 제품의 구매 의도는 도덕적 판단과 관련이 없었다. 영국 남녀 소비자들은 일상용품(커피, 생활용품을 포괄한 일반 제품)보다 럭셔리 브랜드 패션제품 구매에서 도덕적 강도를 낮게 지각하였다(Davies et al.,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지각된 도덕적 강도는 상품 유형에 따라 다르며, 구매행동(의도)을 예측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도덕적 강도’를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비구매를 이끄는 요인이자 개인의 도덕철학과 구매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4. 가치-태도-행동 위계 이론

개인의 도덕철학은 개인적 도덕 가치(personal moral value)로 표현될 만큼(Forsyth & Nye, 1990) 가치(value)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가치는 개인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믿음이며,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내적 체계이다(Rokeach, 1973). Homer and Kahle(1988)은 개인의 생활 습관, 정치적 성향, 시민연대 참여, 여가 활동 선택, 대중매체의 이용, 비윤리적 행동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가치와 태도’의 관련성 및 ‘태도와

행동’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가치-태도-행동 위계 이론(Value-Attitude-Behavior Hierarchy, VAB)’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가치-태도-행동의 위계적 영향 관계를 통한 인과관계의 순차적 흐름과 가치와 행동의 관계에서 태도의 매개적 역할이다. VAB 이론에서, 가치는 가장 추상적인 것이고, 태도는 개인의 내적 상태(신념, 인식, 정서 등)를 의미하는 중간 수준의 추상적인 것이며, 가장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행동이다. 따라서 Homer and Kahle(1988)은 가장 추상적인 가치는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좀 더 직관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다시 구체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Homer and Kahle(1988)은 LOV 가치 항목(Rokeach, 1973)을 자기중심적 관점의 내적 가치(internal value), 소속감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외적 가치(external value),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의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대인관계 가치(interpersonal value)로 분류하고, 세 유형의 가치가 태도를 매개로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 또한 개인의 내적 상태를 매개로 다양한 유형의 행동(구매행동, 방문 행동, 친환경 행동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VAB 이론이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O’boyl and Forsyth(2021)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유형은 개인의 도덕철학에 근원을 둔다는 점에서 Schwartz 가치 척도(Schwartz’s value survey, SVS)에 포함된 10가지 가치 항목들과 도덕철학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이상주의는 SVS의 자기초월 가치(자비, 보편주의)와 정적 관계에 있었으며, 상대주의는 SVS의 개방성과 쾌락주의 가치와 정적 관계를 이루고, 보존과는 부적 관계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도덕철학과 가치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VAB 이론을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 구매행동을 설명하는 연구의 틀(research frame)로 도입하고,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5. 연구가설

동물에서 채취한 천연가죽 소재의 패션제품 구매는 동물학대를 초래할 수 있지만(Kim, 2022; Lee, 2015), 소비자의 실용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이상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일 수록 천연가죽 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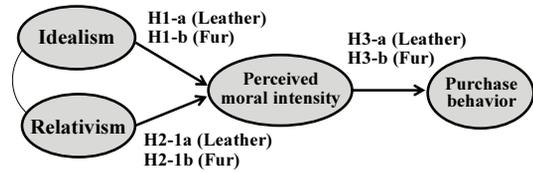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제품의 구매에서 얻게 될 착용자 개인의 혜택보다 생명 존중이란 보편적 도덕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품구매로 발생할 동물 학대나 다른 생물종이 입을 피해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다. 실증 조사에서도 이상주의 성향이 높은 미국 대학생들은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연구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았고(Galvin & Herzog, 1992; Wuensch & Poteat, 1998), 동물권 시위에 참여한 미국인 운동가들은 일반 대학생들 보다 이상주의 성향이 더 높았다. 이상주의 성향이 높은 중국인들 또한 동물에 대한 상해, 동물 살해, 동물복지 박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Su & Martnes, 2022). 따라서 이상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천연가죽 패션제품의 구매로 발생할 동물 학대의 피해를 크게 인식하여 제품구매에 따르는 도덕적 강도를 높게 지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 또한 환경생태계 파괴, 야생동물 감소, 희귀동물 멸종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대한 소비자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상주의 성향이 높은 한국 여성은 환경보호 효과가 공동체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패션제품의 구매에 대해 도덕적 강도를 높게 지각하였다(Hong & Kang, 2019). 미국 남성과 여성 또한 이상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환경문제(오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지구온난화, 배출, 매립)를 도덕적 문제로 판단하였다(Zaikauskaite et al., 2020). 이러한 결과에 따라 때, 이상주의 성향이 높은 한국여성일 수록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로 발생할 환경생태계 파괴나 야생동물 멸종 등의 피해에 민감하여 제품구매에 따르는 도덕적 강도를 높게 지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이상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천연가죽 패션제품(H1-a)과 천연모피 패션제품(H1-b) 구매에 대해 지각한 도덕적 강도가 높을 것이다.

목적론적 철학에 기반한 상대주의자는 의무론적 철학에 기반한 이상주의자와는 다른 행동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컨대, 상대주의 성향이 높은 중국인은 동물에 대한 태도와 동물 관련 문제에 부정적이었다(Su & Martens, 2017, 2022). 상대주의 성향이 높고 이상주의 성향이 낮은 미국인들은 환경친화적 행동(에어컨 줄이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 부엌 쓰레기 퇴비화)을 수행할 의지가 낮았다(Zaikauskaite et al., 2020). 이러한 결과들은 상대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로 인한 동물 학대, 환경생태계 파괴, 희귀동물 멸종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생물종에 한정된 피해로 인식하여 지각된 도덕적 강도가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국인, 파키스탄인, 네덜란드인에 대한 조사에서 상대주의는 동물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없었고(Galvin & Herzog, 1992; Khalid et al., 2023; Su & Martens, 2018), 미국 대학생 조사에서도 동물실험 연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주의 성향과 관련이 없었다(Wuensch & Poteat, 1998). 친환경 행동의 예측에서도 상대주의의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즉 유기농 소재나 천연염색 소재의 패션제품 구매행동(Hong & Kang, 2019) 및 환경친화적 행동(에어컨 줄이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 부엌 쓰레기 퇴비화) 수행에 대한 태도(Zaikauskaite et al., 2023)는 상대주의와 관련이 없었다. 이것은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에서도 상대주의는 지각된 도덕적 강도와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특정 행위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윤리적 중요성이 지역, 문화,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Auger et al., 2007), 한국 여성과 다른 나라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연구에서 관찰된 혼재된 결과, 양 측면 모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2-1. 상대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천연가죽(H2-1a)과 천연모피 패션제품(H2-1b) 구매에 대해 지각한 도덕적 강도는 낮을 것이다.

H2-2. 상대주의는 천연가죽(H2-2a)과 천연모피 패션제품(H2-2b) 구매에 대해 지각한 도덕적 강도와 관련이 없을 것이다.

지각된 도덕적 강도를 환경보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에 따르면, 지각된 도덕적 강도는 친환경 제품의 구매행동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예컨대, 유기농 소재와 천연염색 소재의 패션제품 각각에서 지각된 도덕적 강도가 클수록, 이 두 제품에 대한 한국 여성의 구매행동은 높았다(Hong & Kang, 2019). 또한 친환경 전자제품이 주는 피해나 부정적 기능에 대한 평가가 낮아 이 제품의 구매에 대해 도덕적 강도를 높게 지각한 중국인들은 이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았다(Tian et al., 2022). 슬로베니아 남녀 소비자인 경우, 복제 레저용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높게 지각하여 도덕적 강도 지각이 높을수록, 제품구매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태도는 구매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Koklic, 2011).

또한, 미국과 캐나다 남녀 대학생 및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한 조사연구들에 따르면, 윤리적 요인(윤리적 위험, 윤리적 가치, 생산과정에서의 비윤리성에 대한 지식, 환경문제, 윤리 문제, 생태계 문제 등)과 사회적 요인(사회적 압력, 사회적 위험, 주관적 규범)은 천연모피 의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낮추었지만(Belton & Clinton, 2007; Carrier et al., 2014; Lee, 2017), 윤리적 책임과 윤리적 자아정체성은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 패션제품에 대한 한국 남녀 대학생들의 구매의도를 높였다(Yoh, 2018). 따라서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로 인해 발생할 동물 학대, 환경생태계 파괴, 희귀동물 멸종과 관련하여 지각된 도덕적 강도가 높은 경우 이 제품에 대한 구매행동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H3. 천연가죽(H3-a)과 천연모피 패션제품(H3-b)의 구매에 대해 지각한 도덕적 강도가 높을수록, 이 제품에 대한 구매행동은 낮을 것이다.

계획행동이론 모델에 개인의 도덕철학(이상주의, 상대주의)을 추가하고, 이것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이상주의는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친환경 행동 10개 중 7가지 행동 수행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였다(Zaikauskaite et al., 2023).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개인의 도덕철학은 환경과 관련한 윤리적·비윤리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보다 행동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데 더욱 유용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상주의

가 지각된 도덕적 강도를 통해 구매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유기농과 천연염색 패션제품 구매행동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Hong & Kang, 2019). 패션 분야의 연구는 아니지만, 엔진 결합 정보의 미제공, 과장된 설명, 제품 불일치, 부품 보증 불이행 등의 비윤리적 상황이 고객에게 미칠 피해의 결과를 전반적 도덕적 강도로 평가한 Singhapakdi et al. (1999)의 연구에서도 상대주의는 지각된 도덕적 강도와 윤리적 문제 인식을 통해 행동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도덕철학이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 구매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지각된 도덕적 강도의 매개 역할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H4. 지각된 도덕적 강도는 이상주의가 천연가죽(H4-a)과 천연모피 패션제품(H4-b)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 H5. 지각된 도덕적 강도는 상대주의가 천연가죽(H5-a)과 천연모피 패션제품(H5-b)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측정

동물의 가죽과 모피를 소재로 사용한 패션제품은 본질적으로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일상생활에서 인식되는 실용성, 상징성, 사치성 정도가 다르다는 점, 서구권 일부 국가에서는 천연모피의 생산·유통에 법적 제한을 두지만 가죽은 예외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품을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들은 천연가죽(예: 소가죽, 양가죽 등)과 천연모피(예: 여우, 밍크 등)의 예시가 제시된 두 유형의 패션제품 모두에 대해 평가하였다. 각 제품에 대한 구매행동은 구매빈도(1점: 전혀 구매한 적이 없다~7점: 매우 자주 구매하였다)와 향후 구매 가능성으로 측정되었다(1점: 절대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7점: 매우 자주 구매할 것이다). 이것은 행동의도인 경우 실제보다 약간 과대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실제 구매가 함께 측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Newberry et al., 2003). 또한 학자에 따라서는 행동의도를 이론적 관점이나 논리적 관점에서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거의 동격의 개념으로 간주하며(Blackwell et al., 2006) 이

두 개념은 실증 연구들에서도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였다(Zaikauskaite et al., 2020, 2023). 지각된 도덕적 강도는 Hong and Kang (2019)의 문항들을 참조하여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로 초래될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되었다. 즉, Jones(1991)의 6개 차원 모두를 포함하여 천연가죽 패션제품 구매에 따르는 동물학대 피해 및 천연모피 패션제품 구매에 따르는 환경생태계 파괴와 멸종이라는 피해가 발생할 확률, 규모, 즉시성, 집중성, 근접성, 사회적 합의성으로 측정하였다. 개인의 도덕철학은 단축형 EPQ-5 척도(O'boyl & Forsyth, 2021) 10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Forsyth(1980)의 EPQ 척도로 측정되었다. 개인의 도덕철학과 지각된 도덕적 강도는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는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1점: 전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선택강요형과 자유응답형 척도로 측정되었다.

2. 자료수집과 응답자 특성

한국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 자료는 편의표집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 수요가 높은 40대와 50대는 물론 비건패션에 대한 젊은 층의 수요가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회피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Kim & Kwon, 2016), 미래 패션 시장을 이끌 20대와 30대 여성 또한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무응답자, 불성실한 응답자,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분석을 통해 나타난 이상치를 제외한 총 372명의 응답 자료가 통계분석에 포함되었다. 30대(38.4%), 40대(27.7%), 20대(25.3%)의 응답자가 50대(8.6%) 응답자보다 많았으며, 응답자 대부분은 기혼자이거나(62.1%), 대학 졸업자였고(64.2%), 가족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600만원이었다(59.7%). 시간제 아르바이트(3.0%)를 포함한 직장인(57.6%)이 직장이 없는 응답자보다 많았다(주부 28.2%, 학생 9.1%, 취업준비자 4.8%, 무직자 0.3%). 응답자들은 서울특별시(29.0%), 경기도(22.3%), 제주특별자치도(17.7%), 부산광역시(5.4%), 인천광역시(4.8%)를 비롯하여 전국에 골고루 거주하였다. 자료의 기술통계와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SPSS 24.0이 사용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인과모형 분석, 간접효과 분석에는 AMOS 25.0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개인의 도덕철학을 측정하는 기존의 EPQ 척도(Forsyth, 1980)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주성분 분석, 직교회전, 아이겐 값 1 이상 추출),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상주의와 상대주의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이 추가로 도출되었다(Davis et al., 2001; O'boyl & Forsyth, 2021). 다른 요인들에 속한 문항들은 거짓말·진정성, 도덕표준, 대인관계와 적응 방식에 관한 내용들이었으며(EPQ items: 13, 15, 16, 18, 19, 20), 문항들 중 일부는 EPQ 척도를 개선한 O'boyl and Forsyth(2021)의 EPQ-5 척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EPQ items: 18, 19, 20). 20개 문항의 EPQ 척도에서 10개 문항을 삭제한(인간의 복지와 존엄성, 완벽한 행동, 타인의 복지를 위한 희생,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의 비교 등) EPQ-5 척도에 대해서만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상주의와 상대주의의 2개 요인만 도출되었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EPQ-5 척도의 10개 문항만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검토한 결과, 왜도는 3을 초과하지 않았고(.003 ~ 1.572), 첨도(.021 ~ 3.545)는 8을 초과하지 않아서 자료의 정규성에는 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Kline, 2005). 측정 모형에서 지각된 도덕적 강도는 6개 하위 차원을 포함한 2차요인(a second-order factor) 형태로 구성되었고, 이상주의, 상대주의, 구매행동은 1차요인(a first-order factor) 형태로 구성되었다. 전체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1개의 문

항이 삭제되어, 도덕적 강도의 근접성 차원과 구매행동에는 2개 문항만 유지되었다. 단일요인의 측정모형 분석에서는 최소 3개 문항이 요구되지만, 요인 수가 2개 이상인 측정모형 분석에서는 각 요인에 2개 문항만 유지되어도 분석에 무리가 없다(Kline, 2005).

천연가죽 패션제품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는 권장 기준치(>.9)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었고(TLI=.917, CFI=.925, NFI=.871, GFI=.863, AGFI=.836),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한 간명적합지수(PCFI=.832, PNFI=.783) 또한 권장 기준치를 충족시켰다(>.5 혹은 >.6). 특히, 모형 오류와 간명성이 모두 고려된 RMSEA 지수(<.08) 및 90%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모두 수용 범위에 있었다(RMSEA=.056, LO 90=.051, HI 90=.062, p_{close} =.024). χ^2/df 값이 수용 범위에 있다는 점(1~3), χ^2 값의 유의수준이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점($\chi^2=796.252$, $df=365$, $p<.001$; $\chi^2/df=2.182$),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권장 기준치를 충족시킨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천연가죽 패션제품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부하량은 <Table 1>에서 보듯이 모두 유의하였고, 개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모두 권장 기준치를 충족시켜서(>.7) 연구변인의 수렴타당도는 우수하였다. 2개 문항으로만 측정된 지각된 도덕적 강도의 즉시성 차원과 구매행동의 내적 신뢰도와 개념 신뢰도 또한 권장 기준치 이상이어서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추출된 분산평균(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또한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장 기준치에 근접하였으며(>.5), 이상주의와 상대주의의 AVE 값은 영어 버전의 EPQ-5 척도에서 도출된 AVE 값과 유사하였다

Table 1. CFA for the pooled second-order measurement model: Real leather fashion products

Variable	Items	Loading	C.R.	Mean (S.D.)
Idealism	One should not perform an action which might in any way threaten the dignity and welfare of another individual.	.772***	.829 (.810) ^a	5.916 (.725)
	One should never psychologically or physically harm another person.	.762***		
	The existence of potential harm to others is always wrong, irrespective of the benefits to be gained.	.585***		
	A person should make certain that their actions never intentionally harm another even to a small degree.	.589***		
	If an action could harm an innocent other, then it should not be done.	.785***		

*** $p<.001$, ^aCronbach's α

Table 1. Continued

Variable	Items	Loading	C.R.	Mean (S.D.)
Relativism	Ethical considerations in interpersonal relations are so complex that individuals should be allowed to formulate their own individual codes.	.635***		
	Moral standards are simply personal rules, which indicate how a person should behave, and are not to be applied in making judgments of others.	.575***		
	Questions of what is ethical for everyone can never be resolved as what is moral or immoral is up to the individual.	.819***	.792 (.790) ^a	4.662 (1.138)
	Moral standards should be seen as being individualistic; what one person considers to be moral may be judged to be immoral by another person.	.705***		
	What is ethical varies from one situation and society to another.	.535***		
Moral intensity	Magnitude	.988***		
	Probability	.950***		
	Temporal immediacy	.897***	.935	4.351
	Proximity	.633***	(.849)	(.929)
	Concentration	.873***		
	Social consensus	.643***		
Magnitude	<i>If I buy real leather fashion/clothing products(e.g. cowhide, lambskin etc), its impact on animal abuse will be great.</i>	.811***	.771	4.210
	<i>its negative impact on animal welfare will be great.</i>	.815***	(.753)	(.699)
	<i>its negative impact on animal abuse is very small.</i>	-.536***		
Probability	<i>If I buy real leather fashion/clothing products(e.g. cowhide, lambskin etc), it is very likely to actually worsen animal abuse.</i>	.867***	.809	4.183
	<i>it is very likely that it will actuall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animal welfare.</i>	.829***	(.794)	(.684)
	<i>it is very unlikely to actually occur animal abuse.</i>	-.579***		
Temporal immediacy	<i>If I buy real leather fashion/clothing products(e.g. cowhide, lambskin etc), the fatally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animals will soon appear in the near future.</i>	.787***	.749	3.387
	<i>it will promptly promote animal abuse.</i>	.760***	(.749)	(.824)
Proximity	<i>If I buy real leather fashion/clothing products(e.g. cowhide, lambskin etc), people around me will be hurt because it may worsen animal abuse</i>	-.510***		
	<i>people that I am close to who love animals will be emotionally hurt because of the cruel death of animals</i>	.851***	.803	3.653
	<i>my family and my close acquaintances will be emotionally hurt because of animal abuse.</i>	.882***	(.777)	(.750)
Concentration	<i>If I buy real leather fashion/clothing products(e.g. cowhide, lambskin etc), the negative impact on animals is very strong although its range of effects is small.</i>	.750***		
	<i>the number of animals affected is small, but its damage to them is fatal.</i>	.849***	.846	4.984
	<i>the kinds of animals that are negatively affected are not many, but the damage to them is very serious.</i>	.812***	(.841)	(1.108)
Social consensus	<i>If I buy real leather fashion/clothing products(e.g. cowhide, lambskin etc), the majority of our society will consider it unethical.</i>	.871***	.937	3.624
	<i>the majority of our society will consider it an undesirable decision.</i>	.956***	(.935)	(1.319)
	<i>the majority of our society will consider it an incorrect decision.</i>	.907***		
Purchase behavior	How likely are you to purchase the following product?	.942***	.782	3.706
	How often have you purchased the following product?	.643***	(.753)	(1.263)

*** $\rho < .001$, ^a Cronbach's α

Table 2. Comparison of AVE and SMC values

Product type	Research variables	AVE	SMC		
			Idealism	Relativism	Moral intensity
Real leather fashion items	Idealism	.496			
	Relativism	.438	.011		
	Moral intensity	.710	.017	.000	
	Purchase behavior	.650	.002	.000	.266
Real fur fashion items	Idealism	.496			
	Relativism	.437	.011		
	Moral intensity	.674	.054	.004	
	Purchase behavior	.608	.002	.000	.295

(O'boyl & Forsyth, 2021).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은 모두 .266 이하여서 모든 AVE 값보다 작았다. 따라서 각 연구변인의 판별타당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연모피 패션제품 측정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으며, 카이제곱 지수($\chi^2=752.485$, $df=365$, $p<.001$; $\chi^2/df=2.062$)를 비롯하여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측정모형 적합도는 양호하였다(TLI=.919, CFI=.927, NFI=.869, GFI=.879, AGFI=.855, PCFI=.834, PNFI=.781). RMSEA 지수 또한 권장 기준치를 충족시켰다(RMSEA=.053, LO 90=.048, HI 90=.059, $p\ close= .142$). 측정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개념 신뢰도, 내적 신뢰도 또한 권장 기준치를 충족시켜서 연구변인의 수렴타당도는 양호하였다. 천연모피 패션제품 모형에서도 2개 문항으로만 측정된 도덕적 강도의 즉시성 차원과 구매행동은 개념신뢰도와 내적 신뢰도 모두 권장 기준치에 근접하여 측정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모든 AVE 값은 <Table 2>에서 보듯이 모두 SMC

값보다 커서 연구변인의 판별타당도 또한 양호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균을 산출하고 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이상주의 성향(M=5.916)이 상대주의 성향(M=4.662)보다 더 높았다($t=17.311$, $p<.001$).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이상주의와 상대주의의 관계가 비유의해서($r=.078$, $p=.128$) 두 개념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도덕적 강도의 평균에 대한 paired t-test에서도 6개 차원 모두 5% 유의수준에서 두 제품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로 부정적 결과(환경생태계 파괴, 멸종위기)가 발생할 확률(4.426), 규모(4.599), 즉시성(4.470), 근접성(4.253), 집중성(5.299), 사회적 합의성(4.391)은 천연가죽 패션제품의 구매로 동물 학대가 발생할 확률(4.183), 규모(4.210), 즉시성(3.387) 근접성(3.653), 집중성(4.984), 사회적 합의성(3.624)보다 높게 지각되었다. 천연모피(2.980)보다 천연가죽(3.980)을 더 자주 구매하였으며, 향후 구매 가능성 또한 천연모피(2.190)보다 천연가죽(3.430)이 더 높았다.

Table 3. CFA for the pooled second-order measurement model: Real fur fashion products

Variable	Items	Loading	CR	Mean (S.D.)
Idealism	One should not perform an action which might in any way threaten the dignity and welfare of another individual.	.775***		
	One should never psychologically or physically harm another person.	.761***		
	The existence of potential harm to others is always wrong, irrespective of the benefits to be gained.	.587***	.829 (.810) ^a	5.916 (.725)
	A person should make certain that their actions never intentionally harm another even to a small degree.	.590***		
	If an action could harm an innocent other, then it should not be done.	.781***		

*** $p<.001$, ^aCronbach's α

Table 3. Continued

Variable	Items	Loading	CR	Mean (S.D.)
Relativism	Ethical considerations in interpersonal relations are so complex that individuals should be allowed to formulate their own individual codes.	.635***	.792 (.790) ^a	4.662 (1.138)
	Moral standards are simply personal rules, which indicate how a person should behave, and are not to be applied in making judgments of others.	.574***		
	Questions of what is ethical for everyone can never be resolved as what is moral or immoral is up to the individual.	.819***		
	Moral standards should be seen as being individualistic; what one person considers to be moral may be judged to be immoral by another person.	.705***		
	What is ethical varies from one situation and society to another.	.535***		
Moral intensity	Magnitude	.899***	.923 (.855)	4.853 (.842)
	Probability	.947***		
	Temporal immediacy	.791***		
	Concentration	.969***		
	Proximity	.669***		
	Social consensus	.574***		
Magnitude	<i>If I buy fashion/clothing products made of the fur of wild animals(e.g. mink, fox, rabbit, etc),</i> it will greatly destroy ecological environment.	.946***	.838 (.796)	4.599 (.621)
	it will greatly damage ecological environment.	.863***		
	its negative impact on the ecological environment is very small.	-.540***		
Probability	<i>If I buy fashion/clothing products made of the fur of wild animals(e.g. mink, fox, rabbit, etc),</i> it is very likely to actually damage to ecological environment.	.876***	.796 (.780)	4.426 (.607)
	it is very likely to give a negative impact on the ecological environment.	.798***		
	it is very unlikely to actually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 ecological environment.	-.560***		
Temporal immediacy	<i>If I buy fashion/clothing products made of the fur of wild animals(e.g. mink, fox, rabbit, etc),</i> ecological environment will soon be destroyed in the near future.	.847***	.692 (.670)	4.470 (1.141)
	it will promptly give a negative impact on the ecological environment.	.596***		
Proximity	<i>If I buy fashion/clothing products made of the fur of wild animals(e.g. mink, fox, rabbit, etc),</i> people close to me will be harmed by the ecological environment destruction.	.848***	.823 (.816)	4.253 (1.202)
	ecological environment destruction will be fatal damage to my family.	.799***		
	the community I live in is also damaged by the destruction of ecological environment.	.686***		
Concentration	<i>If I buy fashion/clothing products made of the fur of wild animals(e.g. mink, fox, rabbit, etc),</i> the damage to the ecological environment is partial, but the intensity of the damage is very great.	.733***	.731 (.718)	5.299 (.910)
	it does not destroy the entire ecological environment, but once it is destroyed, it is serious that it cannot be restored.	.775***		
	the extent of its negative impact on the ecological environment is small, but the intensity is very high.	.550***		
Social consensus	<i>If I buy fashion/clothing products made of the fur of wild animals(e.g. mink, fox, rabbit, etc),</i> most people will consider it undesirable.	.921***	.918 (.917)	4.391 (1.292)
	most people will consider it is not right.	.910***		
	most people will consider it unethical.	.833***		
Purchase behavior	How likely are you to purchase the following products?	.917***	.749 (.718)	2.586 (1.198)
	How often have you purchased the following products?	.612***		

*** $p < .001$, ^a Cronbach's α

2. 천연가죽 패션제품 구매행동 인과모형 검증

천연가죽 패션제품 구매행동에 대한 인과모형을 분석한 결과, RMSEA 지수 및 90%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의 범위는 수용 범위에 있었고(RMSEA=.056, LO 90=.051, HI 90=.061, p close=.029), 다른 적합도 지수 또한 권장 기준치를 충족시켰다(TLI=.917, CFI=.925, GFI=.863, AGFI=.837, PCFI=.837, PNFI=.787, $\chi^2/df=2.170$). 인과모형의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로 표기된 <Table 4>와 표준화 계수로 제시된 <Fig. 2>에서 볼 수 있다. 이상주의가 지각된 도덕적 강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유의하였지만($r=.195, p=.028$), 상대주의가 지각된 도덕적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

유의하였다. 따라서 지각된 도덕적 강도와 이상주의와의 정적 관계(H1-a) 및 상대주의와의 관련 없음(H2-2a)은 지지되었지만, 상대주의와 지각된 도덕적 강도의 부적 관계는 기각되었다(H2-1a). 지각된 도덕적 강도가 천연가죽 패션제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beta=-.600, p<.001$)은 지지되었다(H3-a). 이상주의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Table 5>에서 보듯이 유의하였고, 상대주의의 간접적 영향은 비유의하였다. 따라서 천연가죽 패션제품의 구매행동에서 지각된 강도의 매개 역할은 이상주의에서는 지지되었고(H4-a), 상대주의에서는 기각되었다(H5-a).

한편, 불법적, 능동적, 수동적, 타인에게 해가 없는 비윤리적 행동의 회피와 수용에서 이상주의와 상대주

Table 4. Direct effects between research variables: Real leather fashion products

Model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p-value
Research model	Moral intensity	Idealism	.195	.089	2.193	.028
		Relativism	.003	.049	.062	.951
	Purchase behavior	Moral intensity	-.600	.063	-9.573	.000
Alternative model	Moral intensity	Idealism	.196	.089	2.204	.028
		Relativism	.002	.049	.044	.965
	Purchase behavior	Idealism	.030	.093	.319	.750
		Relativism	-.021	.051	-.404	.686
		Moral intensity	-.603	.063	-9.513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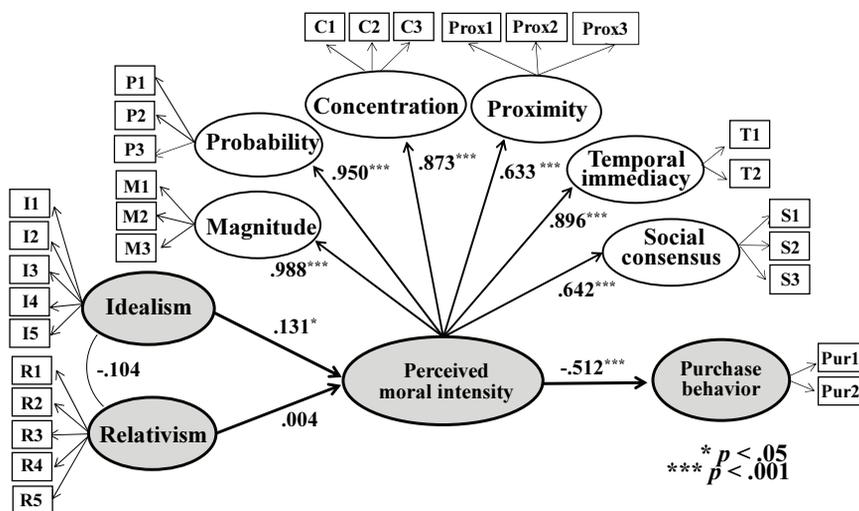


Fig. 2. Hypotheses testing: Real leather fashion products.

Table 5. Indirect effects of idealism and relativism on purchase behavior

Product Type	Paths	Non-standardized		p-value	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oefficients	S.E.
Real leather fashion items	Idealism→ moral intensity → purchase behavior	-.117	.056	.024	-.067	.031
	Relativism→ moral intensity → purchase behavior	-.002	.032	.842	-.002	.033
Real fur fashion items	Idealism→ moral intensity → purchase behavior	-.208	.062	.010	-.119	.033
	Relativism→ moral intensity → purchase behavior	.019	.033	.607	.020	.034

의가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관찰된다는 점에서(e.g., Swaidan et al., 2003), 연구모형에 2개의직접 경로를 포함하여 대안모형을 분석한 결과, RMSEA 지수를 비롯하여(RMSEA=.056, LO90=.051, HI90=.062, p_{close} =.024), 모형 적합도는 양호하였다(TLI=.917, CFI=.925, GFI=.863, AGFI=.836, PCFI=.832, PNFI=.783). 연구모형($\chi^2=796.531$, $df=367$, $p<.001$)과 대안모형($\chi^2=796.252$, $df=365$, $p<.001$)을 비교한 결과, χ^2 값 차이($\Delta\chi^2=.279$, $\Delta df=2$)가 95% 신뢰수준에서의 임계치($\chi^2=5.99$)보다 작아서 두 모형의 적합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비유의하였다. <Table 4>에서 보듯이 이상주의와 상대주의가 구매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비유의하였다. 이것은 천연가죽 패션제품의 구매에서 지각된 도덕적 강도가 개인의 도덕철학(이상주의)과 구매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의미한다.

3. 천연모피 패션제품 구매행동 인과모형 검증

천연모피 패션제품 구매행동에 대한 인과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값을 비롯하여(RMSEA=.053, LO 90=.048, HI 90=.059, p_{close} =.149), 거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권장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었다(TLI=.919, CFI=.927, GFI=.878, AGFI=.855, PCFI=.838, PNFI=.785, $\chi^2/df=2.058$).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제시된 <Table 6>과 표준화 계수가 제시된 <Fig. 3>에서 보듯이, 이상주의가 지각된 도덕적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고($r=.295$, $p<.001$), 상대주의가 지각된 도덕적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유의하였다. 따라서 지각된 도덕적 강도와 이상주의와의 정적 관계(H1-b) 및 상대주의와의 관련 없음(H2-2b)은 지지되었지만, 상대주의와 지각된 도덕적 강도의 부적 관계(H2-1b)는 기각되었다. 지각된 도덕적 강도가 구매행동

Table 6. Direct effects between research variables: Real fur fashion product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p-value
Research model	Moral intensity	Idealism	.295	.081	3.648	.000
		Relativism	-.027	.043	-.630	.528
	Purchase behavior	Moral intensity	-.705	.072	-9.793	.000
Alternative model	Moral intensity	Idealism	.301	.081	3.723	.000
		Relativism	-.027	.043	-.634	.526
	Purchase behavior	Idealism	.155	.097	1.603	.109
		Relativism	-.006	.052	-.114	.909
		Moral intensity	-.734	.075	-9.832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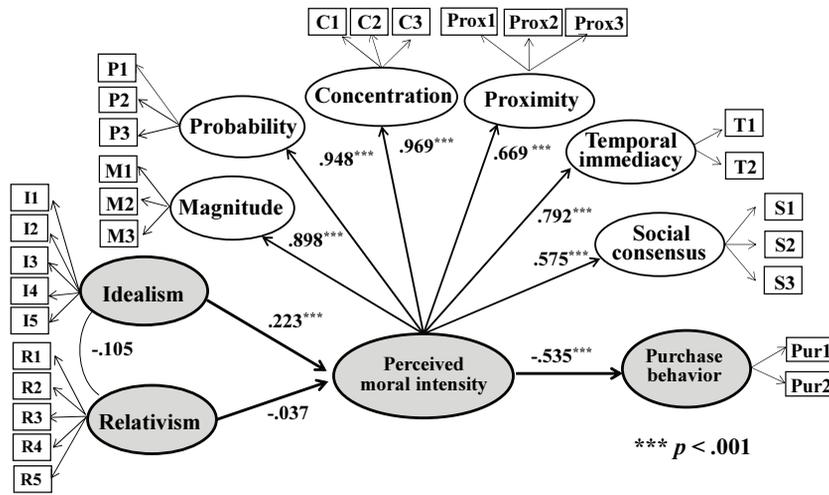


Fig. 3. Hypotheses testing: Real fur fashion products.

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beta = -.705, p < .001$)은 지지되었다(H3-b). 이상주의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Table 5>에서 보듯이 유의하였지만, 상대주의의 간접적 영향은 비유의하였다. 따라서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행동에서 지각된 강도의 매개 역할은 이상주의에서만 지지되고(H4-b), 상대주의에서는 기각되었다(H5-b).

한편, 이상주의와 상대주의가 천연모피 패션제품 구매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 2개를 추가한 대안모형의 적합도는 RMSEA값을 비롯하여(RMSEA=.053, LO 90=.048, HI 90=.059, $p_{close} = .142$) 적합도 지수 대부분이 양호하였다(TLI=.919, CFI=.927, GFI=.879, AGFI=.855, PCFI=.834, PNFI=.781). 연구모형($\chi^2 = 755.112, df = 367, p < .001$)과 대안모형($\chi^2 = 752.485, df = 365, p < .001$)의 χ^2 값 차이는 비유의해서 두 모형의 적합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비유의하였다($\Delta\chi^2 = 2.627, \Delta df = 2$). <Table 6>에서 보듯이 이상주의와 상대주의의 직접적 영향 또한 비유의해서, 지각된 도덕적 강도의 완전 매개 역할이 천연모피 패션제품 구매 행동에서도 확인되었다.

V. 논의 및 시사점

이상주의가 지각된 도덕적 강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천연가죽 패션제품과 천연모피 패션제품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이것은 이상주의의 성향이 높을수록 동물가죽과 동물모피로 만든 패션제품의 구매가 다른

생물종에 미치는 피해(동물학대, 야생동물 멸종)와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고,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를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상주의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은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도덕표준을 인간을 넘어 다른 생물종에까지 적용할 뿐 아니라 이러한 시각은 동물 소재를 이용한 패션제품의 선택 행동에까지 확장됨을 시사한다.

지각된 도덕적 강도에 대한 이상주의의 영향력은 천연가죽보다 천연모피 패션제품 구매에서 더 컸으며, 도덕적 강도는 천연가죽보다 천연모피 패션제품 구매에서 높게 지각되었다. 이것은 이상주의의 성향이 높은 한국 여성들은 천연가죽보다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를 더욱 도덕적인 문제로 인식하며, 이러한 구매에 더 부정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하나의 설명 가능성은 천연가죽 소재의 실용성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성과 활용 당위성이다. 이것은 캐나다 퀘벡 남녀 조사에서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성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천연가죽 패션제품은 스타일, 내구성, 원료, 원산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Carrier et al., 2014). 또 다른 설명 가능성은 환경파괴나 멸종위기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인식되었지만 동물학대는 최근에야 부각된 이슈라는 점이다. 동물학대의 윤리성 및 동물복지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서 대중적으로 높게 형성되지 않아서(Auger et al., 2007) 동물보다 환경적 피해와 연관된 천연모

피 패션제품의 구매에 대해 지각한 도덕적 강도가 더 높고, 이에 대한 이상주의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구권 일부 국가나 도시에서 천연가죽을 제외하고 천연모피에만 한정하여 생산·판매 금지 법안을 상정하거나 법률을 제정한 것도 가죽보다 모피 패션제품의 구매를 더욱 도덕적으로 지각하게 한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주의와 지각된 도덕적 강도의 관련성은 두 제품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상대주의가 지속가능한 패션제품(유기농 제품, 천연염색 제품)의 구매를 비롯하여(Hong & Kang, 2019) 동물, 동물이슈, 동물복지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Galvin & Herzog, 1992; Khalid et al., 2023; Su & Martens, 2018; Wuensch & Poteat, 1998). 그러나 판매 비즈니스에서의 비윤리적 행동과 패션 복제품 구매와 관련하여서는 상대주의의 영향이 관찰된 바 있다(Singhapakdi et al., 1999; Lee & Johnson, 2007). 이와 같이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과주의 철학에 근거한 상황주의 특성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상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보편적 도덕 규칙보다 행동이 초래할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를 분석하고, 비용-편익의 크기를 통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므로 상대주의 성향과의 정적·부적 관련성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천연모피의 생산·유통 금지 법규가 있는 서구권, 동물과 환경 이슈에 대한 교육이 보편화된 선진국 사회, 동물에 대한 숭상이나 종교적 신념이 높은 문화권에서는 동물의 가죽과 모피로 만든 패션제품 구매자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주의자 또한 자신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구매를 도덕적 문제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동물복지나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 수준이나 시민의식이 매우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비자 대부분이 천연가죽이나 천연모피의 구매를 윤리적 관점에서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주의의 성향이 높을수록 이러한 제품의 구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결과)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주의가 도덕적 강도 지각과 부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윤리적 중요성과 도덕적 판단이 국가, 문화,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Auger et al., 2007) 동물·환경 이슈가 내포된 패션제품 구매에 대한 윤리적 인식 및 상대주의와의 관련성을 국가 간 비교 연구나 비교 문화 관점을 통해 조사함

으로써 상대주의자의 반응을 일관성있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 행동에서 도덕철학의 역할을 확장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각된 도덕적 강도는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의 비구매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매우 높았으며, 이상주의와 구매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반면, 이상주의와 상대주의는 구매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이상주의의 선택 행동은 이에 앞서 선행되는 심리적 메카니즘에 의존함을 시사한다. 즉, 도덕성에 대한 지각, 추론, 판단 등의 심리적 과정이 선행되지 않거나 매우 약한 경우 이상주의 성향과 윤리적 선택 행동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도덕 표준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사회 전체의 합의 정도가 낮은 선택 행동을 개인의 도덕철학 관점에서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VAB 이론에서 제안한 것처럼 매개적 역할을 하는 개인의 내적 요인(특히 도덕성 관련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윤리적·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상대주의의 예측 기여도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상황적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주의의 행동을 일관성있게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메카니즘이나 상대주의자의 선택 행동을 이끄는 심리적 매개변인을 규명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수립과 교육 방향 모색에서도 윤리적 행동 그 자체에 대한 권장이나 강요보다 구매·소비 행동에 따르는 도덕성에 대한 지각·인식, 추론, 판단이 우선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도덕적 강도 6개 하위 차원의 강조를 통해 행동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천연가죽과 천연모피 패션제품 각각의 구매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 피해의 규모, 피해의 즉시성, 피해의 치명성,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피해 관련성, 피해의 비윤리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동의 정도를 정량적·정성적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동을 공동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패션 브랜드는 천연가죽과 천연모피의 획득과 제품생산 과정에서 자사가 개선한 문제들이 동물·환경 이슈에 어떻게 공헌하는지를 이러한 6개 차원과 관련시켜 제공하거나 기업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도덕적 강도 6개 차원과 관련하여 대중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수행한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기존 연구자들이 언급한 EPQ 척도의 문제

점(Davis et al., 2001; O'boyl & Forsyth, 2021)이 한국어 번역 문항에서도 관찰되었다. 이를 개선한 EPQ-5 문항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영어 문항으로 이루어진 원래의 척도와 유사하고 권장기준치에 근접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단축된 EPQ-5 척도는 기존 EPQ 척도 보다 이상주의와 상대주의를 식별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비영어권에서의 사용 가능성 또한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도덕철학 중 이상주의의 간접적 영향과 지각된 도덕적 강도의 매개 역할을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동물·환경 이슈가 내포된 패션제품에 대한 한국 여성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두 개념이 이러한 구매행동 예측에 유용함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문헌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50대 이상의 여성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50대 여성을 더 많이 확보하여 동물·환경의 이슈가 내포된 패션제품이나 비건 패션 구매행동에서 XYZ 세대 간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잠재 수요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타겟 연령대에 맞춤형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1. 사사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임.

2. 연구윤리

해당사항 없음.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교신저자가 제공 가능함.

4. 이해관계 상충

해당사항 없음.

5. 연구비 지원

해당사항 없음.

6. 저자의 기여

HK와 HH는 설문조사를 함께 수행하였고, HK는 자료의 통계분석과 결과 해석 및 원고 초안을 작성하였음. HH는 논문을 재구성하고,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음. 모든 저자는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7. 저자 정보

김혜성 제주대학교 패션의류학과, 석사
홍희숙 제주대학교 패션의류학과, 교수

References

- Auger, P., Devinney, T. M., & Louviere, J. J. (2007). Using best-worst scaling methodology to investigate consumer ethical beliefs across countri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70(3), 299–326. <https://doi.org/10.1007/s10551-006-9112-7>
- Barnett, T., Bass, K., & Brown, G. (1994). Ethical ideology and ethical judgment regarding ethical issues in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6), 469–480. <https://doi.org/10.1023/A:1005736404300>
- Belton, K., & Clinton, B. (2007). How society influences young consumers' perceptions of fur and leather goods. *Undergraduate Research Journal for the Human Sciences*, 6, 1–10.
- Blackwell, R. D., Miniard, P. W., & Engel, J. F. (2006). *Consumer behavior* (10th ed.). Thomson South-Western.
- Business Research Insights. (2024, February). *Genuine leather market size, share, growth, and industry analysis, by type (top-grain, split leather and others), by application (consumer goods, furniture, automobile and others) regional forecast to 2028*. <https://www.businessresearchinsights.com/market-reports/genuine-leather-market-106124>
- Carrier, S., Germain, A. M., & Jean, S. (2014). Determinants to the consumption of leather products. *Annals of the University of Oradea Fascicle of Textiles, Leatherwork*, 15(1), 133–138.
- Collective Fashion Justice. (n.d.). *Issues in the bovine skin leather supply chain*. <https://www.collectivefashionjustice.org/leather>
- Davies, I. A., Lee, Z., & Ahonkhai, I. (2012). Do consumers care about ethical-luxur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6, 37–51. <https://doi.org/10.1007/s10551-011-1071-y>
- Davis, M. A., Andersen, M., & Curtis, M. B. (2001). Measuring ethical ideology in business ethics: A critical analysis of the ethics position questionnaire. *Journal of Business Ethics*, 32(1), 35–53. <https://doi.org/10.1023/A:1010701417165>
- Forsyth, D. R. (1980). A taxonomy of ethical ideolo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75–184.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2-3514.39.1.175>
- Forsyth, D. R., & Pope, W. R. (1984). Ethical ideology and judgments of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6), 1365–1375.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2-3514.46.6.1365>
- Forsyth, D. R., & Nye, J. L. (1990). Personal moral philosophies and moral choi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4(4), 398–414. [https://doi.org/10.1016/0092-6566\(90\)90030-A](https://doi.org/10.1016/0092-6566(90)90030-A)
- Forsyth, D. R., O'boyle, E. H., & McDaniel, M. A. (2008). East

- meets west: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cultural variations in idealism and relativism. *Journal of Business Ethics*, 83(4), 813–833. <https://doi.org/10.1007/s10551-008-9667-6>
- Forsyth, D. R. (1992). Judging the morality of business practices: The influence of personal moral philosophi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 461–470. <https://doi.org/10.1007/BF00870557>
- Forsyth, D. R. (2020). *Making moral judgment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morality, ethics, and decision-making*. Taylor & Francis.
- Forsyth, D. R. (1981). Moral judgment: The influence of ethical ide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2), 218–223.
- Galvin, S. L., & Herzog, H. A. (1992). Ethical ideology, animal rights activism, and attitudes toward the treatment of animals. *Ethics & Behavior*, 2(3), 141–149. https://doi.org/10.1207/s15327019eb0203_1
- Glenn, A. L., Iyer, R., Graham, J., Koleva, S., & Haidt, J. (2009). Are all types of morality compromised in psychopath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3(4), 384–98. <https://doi.org/10.1521/pedi.2009.23.4.384>
- Gray, K., & Schein, C. (2012). Two minds vs. two philosophies: Mind perception defines morality and dissolves the debate between deontology and utilitarianism.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3(3), 405–423. <https://doi.org/10.1007/s13164-012-0112-5>
- Homer, P. M., & Kahle, L. R. (1988). A structural equation test of the value-attitude-behavior hierarc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4), 638–646. <https://doi.org/10.1037/0022-3514.54.4.638>
- Hong, H., & Kang, J. H. (2019). The impact of moral philosophy and moral intensity on purchase behavior toward sustainable textile and apparel products. *Fashion and Textiles*, 6, 16. <https://doi.org/10.1186/s40691-019-0170-8>
- Jones, T. M. (1991). Ethical decision making by individuals in organizations: An issue-contingent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2), 366–395. <https://doi.org/10.5465/amr.1991.4278958>
- Khalid, A., Martens, P., & Khalid, A. (2023). Impact of ethical ideologies on students' attitude toward animals: A Pakistani perspective. *Animals*, 13, 927–938. <https://doi.org/10.3390/ani13050927>
- Kim, E. H. (2022, September 2). *지금 신고 있는 신발에 스민 피, 땀, 눈물 아시나요* [Do you know the skin, sweat, and tears on the shoes you're wearing]. Hankyoreh.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57218.html>
- Kim, J.-E., Cho, H. J., & Johnson, K. K. (2009). Influence of moral affect, judgment, and intensity on decision making concerning counterfeit, gray-market, and imitation produc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7(3), 211–226. <https://doi.org/10.1177/0887302X08327993>
- Kim, J. Y. (2010). A study on purchasing behaviors of fur clothing consumers according to benefits sought.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1(2), 211–225.
- Kim, S. Y. (2011). Expression techniques and characteristics of leather in contemporary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1), 71–82.
- Kim, Y. J., & Kwon, Y. J. (2016). Is ethical consumption altruistic or egoistic?: Consumer culture of wearing faux fu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6(7), 17–33. <https://dx.doi.org/10.7233/jksc.2016.66.7.017>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Guilford Press.
- Koklic, M. K. (2011). Non-deceptive counterfeiting purchase behavior: Antecedents of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27(2), 127–137.
- Korea Customs Service. (n.d). 수출입무역통계[Import and export trade statistics].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 Lee, H. J. (2015, August 26). *악어가죽 '명품' 가방, 이렇게만 들어집니다*[Alligator leather 'luxury' bag, it is made by this way]. Ohmynews. http://www.ohmynews.com/NWS_View/at_pg.aspx?CNTN_CD=A0002138181
- Lee, J.-M. (2017). Effects of benefits and risk perception on purchase intention for fur apparel: A multiple mediation model of consumer emotion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6), 609–623. <https://doi.org/10.6115/fer.2017.044>
- Lee, J.-M., & Choi, Y. J. (2016). Understanding fur clothing consumption: A comparison between real fur and faux fur.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7(4), 207–226.
- Lee, M., & Johnson, K. K. P. (2007). Effects of ethical ideologies on the Korean consumers' perceptions and purchase intentions of fashion counterfei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12), 1793–1802. <https://doi.org/10.5850/JKSC.2007.31.12.1793>
- Lee, S.-H. (2010). Innovation system module for ethics management of fashion industry: Focused on ethics values between consumers and entrepreneur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4(1), 1–10.
- Lee, Y. H. (2008, November 19). <J-Style> 5000만원짜리 비쿠냐 코트'... "내 브랜드를 알리지 말라" [<J-Style> 50 million won 'Vicuna coat' ... "Don't let my brand be known"]. Joongangilbo. <https://www.joongang.co.kr/article/3384383#home>
- Lim, J. Y. (2021, November). *친환경부터 동물복지까지 생산자도 소비자도 웃는 '윤리적 소비'* [From eco-friendliness to animal welfare, 'ethical consumption' making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smile]. KDI Economic Information

- Center.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2000040000100012&cidx=13566&sel_year=2021&sel_month=11
- Newberry, C. R., Klemz, B. R., & Boschoff, C. (2003). Managerial implications of predicting purchase behavior from purchase intention: A retail patronage case study.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17(6), 609–620. <https://doi.org/10.1108/088876040310495636>
- Nucci, L., & Turiel, E. (1993). God's word, religious rules, and their relation to Christian and Jewish children's concepts of morality. *Child Development*, 64(5), 1475–1491.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3.tb02965.x>
- O'Boyle, E. H., & Forsyth, D. R. (2021). Individual differences in ethics positions: The EPQ-5. *PLOS ONE*, 16(6), e025198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51989>
- PETA. (n.d.). *Animals used for fur*.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https://www.peta.org/issues/animals-used-for-clothing/fur/animals-used-fur/>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Free Press.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Free press.
- Seol, H. J. (2000, October 20). 순록/타조 신고 뛰어볼까?.. '제2의 피부' 가죽 열풍! [Shall we run in reindeer/ostrich shoes?.. 'Second Skin' leather craze!]. The Korea Economic Daily.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0101955261>
- Sung, K. P. (2021, December 4). <이슈 추적> 모피는 패션시장에서 사라질까 [Issue Tracking] Will fur disappear from the fashion market]. The Women Times.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70>
- Singhapakdi, A., Vitell, S. J., & Franke, G. R. (1999).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moral intensity and personal moral philosophie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7(1), 19–36. <https://doi.org/10.1177/0092070399271002>
- Smith, P. (2024, February 16). *Projected value of the women's vegan fashion market 2020-2028*.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97051/-womens-vegan-fashion-market-value/#statisticContainer>
- Su, B., & Martens, P. (2017). Public attitudes toward animals and the influential factors in contemporary China. *Animal Welfare*, 26(2), 239–247. <https://doi.org/10.7120/09627286.26.2.239>
- Su, B., & Martens, P. (2018). How ethical ideologies relate to public attitudes toward animals: The dutch case. *Anthrozoos*, 31(2), 179–194. <https://doi.org/10.1080/08927936.2018.1434056>
- Su, B., & Martens, P. (2022). Public concern for animal welfare and its correlation with ethical ideologies after coronavirus disease (COVID-19) in China. *Animal Welfare*, 31, 309–318. <https://doi.org/10.7120/09627286.31.3.003>
- Swaidan, Z., Vitell, S. J., & Rawwas, M. Y. (2003). Consumer ethics: Determinants of ethical beliefs of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46(2), 175–186. <https://doi.org/10.1023/A:1025068902771>
- Tansey, R., Brown, G., Hyman, M. R., & Dawson Jr., L. E. (1994). Personal moral philosophies and the moral judgments of salespeople. *Journal of Personal Selling & Sales Management*, 14(1), 59–75.
- Tian, Z., Sun, X., Wang, J., Su, W., & Li, G. (2022). Factors affecting green purchase intention: A perspective of ethical decision ma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8), 11151. <https://doi.org/10.3390/ijerph191811151>
- Wuensch, K. L., & Poteat, G. M. (1998). Evaluating the morality of animal research: Effects of ethical ideology, gender, and purpos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3(1), 139–150.
- Yoh, E. (2018). Determinants of purchase intention for vegan fashion products: Application of the modified planned behavior model.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6(2), 125–139. <https://doi.org/10.29049/rjcc.2018.26.2.125>
- YTN. (2019, December 17). <DMZ의 야생> 수달 [Wildlife in DMZ] Otter].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170033598171
- Zou, L. W., & Chan, R. Y. K. (2019). Why and when do consumers perform green behaviors? An examination of regulatory focus and ethical ideolog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94, 113–127. <https://doi.org/10.1016/j.jbusres.2018.04.006>
- Zaikauskaitė, L., Chen, X., & Tsivrikos, D. (2020). The effects of idealism and relativism on the moral judgement of social vs. environmental issues, and their relation to self-reported proenvironmental behaviours. *PLOS ONE*, 15(10), e023970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39707>
- Zaikauskaitė, L., Grzybek, A., Mumford, R. E., & Tsivrikos, D. (2023).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doesn't reveal 'attitude-behaviour' gap? contrasting the effects of moral norms vs. idealism and relativism in predicting pro-environmental behaviours. *PLOS ONE*, 18(11), e0290818.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90818>